

[1 ~ 2] 다음은 세 사람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후배 : 안녕하세요. 신입생인데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어 왔어요.
 선배 1 : (밝게 웃으며) 네, 어서 오세요. 우리 향토역사탐구반은 면접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역사에 관심이 많고 탐구 활동에 대한 열의를 지닌 신입 부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후배 : 탐구 활동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활동인가요?
 선배 1 :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궁금한 거죠? (상대방의 표정을 살핀 후) 우리 동아리는 향토의 역사를 탐구하는 동아리예요. 주로 우리 지역의 사적지나 문화재를 탐방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탐구하는 활동을 해요.
 선배 2 : 우리 동아리 활동을 하면 성적도 많이 올라갈 거예요. 공부 잘하는 부원이 많거든요.
 후배 : ㉠ 공부 잘하는 부원이 많다고 해서 제 성적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선배 1 : 이 친구 말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활동할 기회가 많으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라는 얘기지요. 저도 동아리 분위기의 덕을 많이 봤어요.
 후배 : 그런데 저는 학업 성적도 중요하지만 동아리 활동도 학교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향토역사탐구반에서 찾을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의 독특한 의미가 있을까요?
 선배 1 : 어떤 동아리든 그 활동은 다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의미를 찾는 것은 부원 각자의 몫이 아닐까요?
 후배 : (고개를 끄덕이며) ㉡ 동아리 활동의 의미는 제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선배 2 :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 동아리에는 동아리 활동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뒀다가 대학에 지원할 때 자신의 학교생활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해 합격한 선배들도 많아요.
 후배 : ㉢ 우와, 정말이에요? 혹시 학교 신문이나 학교 홍보 자료에 그 내용이 실려 있나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동아리 활동에 대한 기록도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겠네요.
 선배 2 :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동아리에 대해 알고 있는 점이 있나요? 작년에 동아리 부원을 모집할 때 우리 동아리의 인기가 제일 많았다는 사실이라든가.....
 후배 : ㉣ 어? 동아리 중에서는 실용음악반 지원 경쟁률이 제일 높다고 들었는데요.
 선배 1 : 실용음악반은 모집 인원이 적어서 지원 경쟁률이 높은 것이고요, 지원자 총수는 우리 향토역사탐구반이 세 배 이상 더 많았어요. 먼저 찾아와서 관심을 보이는 후배이니 가입이 더 쉽도록 배려해 줄 수 있어요.
 후배 : ㉤ 고맙지만 제게만 주어지는 혜택은 사양하고 싶어요. 문의에 친절하게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보기>를 참고할 때, 위 대화에 나타난 비판적 듣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비판적 듣기는 의사소통 내용의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을 평가하며 듣는 것이다. 이때 타당성은 논리적인가에 관한 것, 공정성은 편파적인지에 관한 것, 신뢰성은 믿을 만한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 ① ㉠ : 근거가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아, 타당성을 평가하며 들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 : 선택의 결과에 유불리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 공정성을 평가하며 들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 :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 신뢰성을 평가하며 들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 : 사전 정보와의 차이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신뢰성을 평가하며 들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 :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차등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아, 공정성을 평가하며 들었음을 알 수 있다.

2. ‘선배 1’의 발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첫 번째 발언에서는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환영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두 번째 발언에서는 물음을 통해 상대방의 질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 ③ 세 번째 발언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들어 상대방의 반박에 대응하고 있다.
- ④ 네 번째 발언에서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 ⑤ 다섯 번째 발언에서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인식을 바꾸려 하고 있다.

[3~5] 다음은 모의 면접 수업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모의 면접 수업의 진행 방식]

- 면접자, 피면접자로 나누어 모의 면접을 진행하고, 이에 대해 평가한다.

[선생님이 내 준 과제]

- 면접자의 역할을 맡은 학생: 피면접자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관심 분야, 전공 선택 동기, 지원 학과에 대한 준비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 준비하기.
- 피면접자의 역할을 맡은 학생: 자기소개서를 면접자에게 제출하고, 면접자의 질문을 예상하여 답변 준비하기.

[모의 면접]

면접자: 긴장한 것처럼 보이는데, 심호흡 한번 하시고 편하게 답해 주세요. 자기소개서를 보니 심리학에 관심이 많고 그 분야에 관한 책도 많이 읽었네요. 그런데 심리학과는 아닌 경제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뭐죠?

피면접자: 저는 인간의 생각, 사고 과정 등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리학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수업 시간에 경제를 배우면서부터 경제학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제학자는 “경제는 심리다.”라고 하면서 경제 현상을 잘 이해하려면 인간의 생각이나 사고 과정 등에 대한 지식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경제 현상을 심리학과 관련지어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경제학과에 지원하였습니다.

면접자: 네, 그렇군요. 그러면 경제학과에 지원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 왔나요?

피면접자: 제 수준에 맞는 경제 관련 서적을 많이 읽으면서, 틈틈이 경제 관련 기사를 스크랩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교내의 경제 동아리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A] 면접자: 경제학 관련 서적을 많이 읽었다고 했는데, 그동안의 독서 경험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피면접자: 예,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책은 대니얼 카너먼의 “행동 경제학”입니다.

[B] 면접자: 그래요? 으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약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피면접자: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C] 면접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면접자: 기업이 이윤 추구 외에도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하게 되면 기업 이미지가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기업의 수익 증대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다음은 모의 면접을 참관한 학생들이 면접자에 대해 평가한 내용이다. 평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면접자의 역할 | 반영 | 미반영 |
|---|--|----|-----|
| ① | 피면접자의 긴장 해소를 위해 배려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 | |
| ② |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토대로 피면접자의 관심 분야를 확인하고 있다. | | ✓ |
| ③ | 피면접자의 전공 선택 동기를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 ✓ | |
| ④ | 전공 선택의 동기와 관련된 구체적 경험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 ✓ |
| ⑤ | 진학을 위해 피면접자가 어떤 준비를 해 왔는지를 질문하고 있다. | ✓ | |

4. 피면접자의 첫 번째 발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희망 직업을 언급하며 전공 선택의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다.
- ②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관심 분야와 선택 전공 간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선택 전공 분야의 긍정적 미래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지원 동기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④ 면접자가 제시한 질문의 의미를 확인하며 답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다.
- ⑤ 선택 전공을 전문적으로 다룬 서적에 대한 풍부한 독서 경험을 내세워 강점을 부각하고 있다.

5. <보기>를 바탕으로 [A] ~ [C]에 대해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면접에서 면접자의 질문은 크게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으로 나눌 수 있다. 폐쇄형 질문은 질문자가 제시한 선택지에서 답을 선택하거나 제한된 범위의 단어로 답하는 질문이다. 개방형 질문은 피면접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허용된 형태의 질문이다.

- ① [A]에서 피면접자는 질문의 유형에 부합하는 대답을 하였다.
- ② [B]에서 피면접자는 특정 사항에 대한 판단을 밝혔다.
- ③ [A]와 [C]에서 면접자는 동일한 유형의 질문을 하였다.
- ④ [C]에서 면접자는 피면접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을 하였다.
- ⑤ [C]에서 피면접자는 [B]에서 한 답변을 바탕으로 심화된 내용을 진술하였다.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는 학교 신문반의 편집 회의 결과를 기록한 메모이고, (나)는 (가)의 계획에 따라 작성한 기사의 초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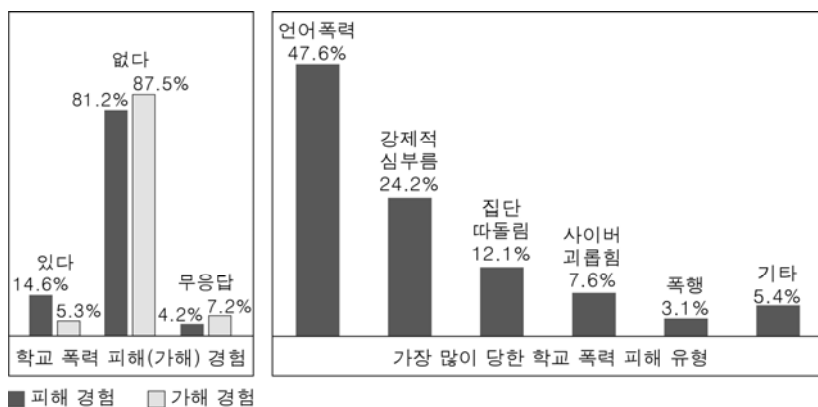
(가) 학교 신문반의 편집 회의 결과

1. 기사의 주제: 교내 학교 폭력의 실태와 원인 및 해결 방안
2. 내용 전개: '㉠ 기사 기획 배경 → ㉡ 교내 학교 폭력의 실태 → ㉢ 교내 학교 폭력의 주요 원인 → 교내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방안'의 순서로 내용을 전개할 것.
3. 기사 작성 시 유의 사항
 - 1) ㉢ 주요 설문 조사 결과는 시각적 자료로 제시할 것.
 - 2) ㉢ 교사, 학생, 학부모 차원의 실천 방안을 구분하여 제시할 것.

(나) 기사의 초고

[A] 상담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최근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우리 학교의 학교 폭력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교내 학교 폭력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특집 기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본지는 교내 학교 폭력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설문 조사는 1인 1응답 기준으로 실시됨.

[교내 학교 폭력 관련 설문 조사 결과]

[B]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전교생의 14.6%였던 반면, 학교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5.3%였다. 피해를 당한 학교 폭력의 유형으로는 피해 학생들의 절반에 가까운 47.6%의 학생들이 언어폭력을 꼽았다.

[C] 한편 전체 학생 중 37%가 친구에게 욕설을 자주 하는 편이라고 답했으며, 친구에게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도 28%에 달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재미있어서'라거나 '내가 편하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반면, 언어폭력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의 85%, 강제적 심부름을 당했다는 학생의 79%가 학교를 그만 두고 싶을 정도로 괴롭다고 응답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인식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D] 이와 같은 설문 조사 결과는 가해 학생들의 잘못된 인식이 교내 학교 폭력 문제를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언어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교내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욕설 등의 잘못된 언어 사용이 심각한 학교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바른 언어 사용 문화 형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E] 아울러, 학교 폭력 없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폭력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회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학생자치 법정을 통해 학생들 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는 등 우리 스스로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가)의 ㉠~㉢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7. 기사의 초고를 쓴 학생이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학교 폭력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사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 피해 학생의 보호나,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 청소년 상담 전문가 ○○○ —

- ① [A]에서 가해 학생들은 언급하지 않았네. 처벌로 인해 상처를 받는 학생들도 있을 테니 글의 공정성을 위해 [A]에 가해 학생들의 고민을 소개하는 내용을 추가해야겠어.
- ② [B]에서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만 제시했네. 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 학생들이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상처에 관한 인터뷰 내용을 [B]에 추가해야겠어.
- ③ [C]에서 친구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이유에 관한 설문 결과를 제시한 것은 주제와 상관이 없군. 글의 통일성을 위해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피해자에 관한 내용만 서술해야겠어.
- ④ [C]에서 피해 학생들의 정신적 상처에 관한 설문 결과를 제시했네. 글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 학생들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실천 방안에 관한 내용을 [D]에 추가해야겠어.
- ⑤ [E]에 담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족하네. 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D]와 [E] 사이에 <보기>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E]에 담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해야겠어.

8. 신문반 담당 교사의 요구에 따라 ㉔에서 사용할 문구를 만든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신문반 담당 교사의 요구 >

- 기사의 초고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제시된 내용을 다룰 것.
- 설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조의 표현을 사용할 것.

- ① 몸은 편해지지만 마음은 불편해집니다.
친구는 내 일을 대신 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 ② 따돌림으로 멍든 마음, 주먹질로 멍든 몸.
따돌림도 주먹질도 모두 똑같은 학교 폭력입니다.
- ③ 말은 생각과 인격을 담은 그릇입니다.
행복한 학교, 당신의 실천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④ 용기를 안 내면 힘들어지고, 용기를 내면 행복해집니다.
학교 폭력, 이제는 숨기지 말고 용기 있게 말해야 합니다.
- ⑤ 생각 없이 하는 욕설 한마디가 학교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폭력, 가해자에게는 재미일지 모르지만 피해자에게는 큰 상처가 됩니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수행 평가 과제로 제출할 독서 감상문을 작성해야 함.

[학생의 글]

나만 몰랐던 이야기, 나를 되돌아보게 하다

최근에 읽었던 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당신만 모르는 조선 이야기』이다. 이 책은 조선의 역사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들을 재미있게 ㉠ 소개시키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책의 내용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조선의 과거 제도에 관한 ㉡ 이야기가 흥미로웠다.

조선 시대 양반 자제들 중에 33명의 최종 합격자 명단에 들 수 있었던 사람들은 대략 5세 때부터 평균 25~30년을 공부하였다고 한다. ㉢ 한편 18세기에 활동한 이진창이라고 하는 선비는 10대 중반에 과거에 합격했다고 한다. 조선의 선비는 현재의 우리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공부에 매진하여야만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관을 꿈꾸는 사람들이 과거 시험에서 거쳐야 하는 최종 관문은 ‘전시’였다고 한다. 전시에서 가장 많이 봤던 시험은 논술 시험의 일종인 책문이었다. 이 시험에서는 나라의 현안에 관한 해결 방안과 같이 종합적 사고를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다고 한다. ㉣ 그리고 길이 12미터에 달하는 답안을 제출한 선비도 있었다고 하니, 조선 시대 선비의 지식과 소양이 대단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선의 과거 제도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오늘날의 현실과 나의 자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우리 교육이 우리들에게 획일화된 정답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현실에 아무 생각 없이 맞추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았다. 책을 손에서 놓고서도 이런 생각을 ㉤ 몇일째 곱씹어 보고 있다.

9. 학생이 윗글을 쓰면서 고려했을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책 이름과 느낀 점을 활용하여 제목을 정해야겠어.
- ② 책의 내용 중 가장 흥미로웠던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겠어.
- ③ 첫 문단에서는 저자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먼저 제시해야겠어.
- ④ 둘째, 셋째 문단에서는 책의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이어서 내가 느낀 점을 서술해야겠어.
- ⑤ 마지막 문단에서는 책을 읽고 난 후 갖게 된 문제의식을 제시해야겠어.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동 표현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소개하고’로 고친다.
- ②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이야기였다’로 고친다.
- ③ ㉢: 글의 흐름에 어긋나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④ ㉣: 이어지는 문장을 고려하여 ‘하지만’으로 고친다.
- ⑤ ㉤: 맞춤법 규정에 어긋나므로 ‘며칠째’로 고친다.

11. <보기>를 바탕으로 표준 발음법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표준 발음법 규정 >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ㄷ, ㅌ, ㄴ, ㄷ, ㅌ, ㄴ), ㄴ(ㄴ, ㄷ, ㅌ, ㄴ, ㄷ, ㅌ, ㄴ)’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ㄴ, ㄷ, ㅌ, ㄴ’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제24항 어간 받침 ‘ㄴ(ㄴ), ㄷ(ㄷ)’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ㄴ, ㄷ’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다만, 피동, 사동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제25항 어간 받침 ‘ㄷ, 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ㄴ, ㄷ’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① ‘따뜻한 국밥’에서 ‘국밥’은 제23항을 적용하여 [국뽵]으로 발음해야겠군.
- ② ‘우리 집 닭장’에서 ‘닭장’은 제23항을 적용하여 [닥짱]으로 발음해야겠군.
- ③ ‘의자에 앉도록’에서 ‘앉도록’은 제24항을 적용하여 [안또록]으로 발음해야겠군.
- ④ ‘아이에게 신발을 신기다’에서 ‘신기다’는 제24항을 적용하여 [신기다]로 발음해야겠군.
- ⑤ ‘여덟과 아홉’에서 ‘여덟과’는 제25항을 적용하여 [여덜과]로 발음해야겠군.

12. <보기>의 ㉠ ~ ㉣에 들어갈 어휘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합성어는 어근의 배열 양상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뉜다. 어근의 배열이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일치하는 것을 통사적 합성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비통사적 합성어라 한다. 합성어에서 어근의 구체적 결합 양상은 다음과 같다.

< 통사적 합성어의 유형과 예 >

- 체언 + 체언 : 밤낮
- 체언 + 용언 : ㉠
- 관형사 + 체언 : ㉡
- 용언의 관형사형 + 체언 : ㉢

< 비통사적 합성어의 유형과 예 >

- 부사 + 체언 : 보슬비
- 용언의 어간 + 체언 : ㉣
- 용언의 어간 + 용언의 어간 : ㉤

- ① ㉠ : 낮설다 ② ㉡ : 첫사랑 ③ ㉢ : 뜬소문
④ ㉣ : 덮밥 ⑤ ㉤ : 앞서다

13. 수업 시간에 문장을 다듬는 연습을 하였다. 고친 이유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고쳐야 할 문장 | 고친 문장 | |
|-----------------------------|--------------------------------|-------|
| 가던지 말던지 맘대로 해. | 가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 ... ㉠ |
| 기차가 이른 속도로 달렸다. | 기차가 빠른 속도로 달렸다. | ... ㉡ |
|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라. |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 ... ㉢ |
| 한결같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이 많다. | 어려운 이웃을 한결같이 돕는 사람이 많다. | ... ㉣ |
| 남에게 고통을 주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 | 남에게 고통을 주거나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 | ... ㉤ |

- ① ㉠ : 어미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아서
② ㉡ :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아서
③ ㉢ :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아서
④ ㉣ : 문장이 중의적으로 해석되어서
⑤ ㉤ : 문장 사이의 접속 표현이 어색해서

14.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쓰인 높임의 양상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 보 기 1 >

국어의 높임법은 높임의 대상이 무엇이나에 따라 크게 셋으로 나뉜다. 주체 높임법에서는 문장의 주어가 가리키는 인물, 객체 높임법에서는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상대 높임법에서는 말을 듣는 상대, 즉 청자가 높임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개 두세 가지의 높임법이 동시에 사용된다. 존대를 [+]로 비존대를 [-]로 나타낸다면, ‘철수야, 할아버지 오셨어.’와 같은 문장은 [주체 높임 +], [상대 높임 -]로 표시할 수 있다.

< 보 기 2 >

영희가 할머니를 모시고 공원에 갔어요.

- ① [주체 높임 -], [객체 높임 +], [상대 높임 +]
② [주체 높임 -], [객체 높임 +], [상대 높임 -]
③ [주체 높임 -], [객체 높임 -], [상대 높임 -]
④ [주체 높임 +], [객체 높임 +], [상대 높임 +]
⑤ [주체 높임 +], [객체 높임 -], [상대 높임 -]

15. <보기>를 읽고 중세 국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중세 국어]
넷 ㉠마틴 ㉡닐오딘 ㉢어딘 일 ㉣조초미 ㉤노푼 덕 울음
근고 사오나온 일 조초미 아래로 물어딘 곧ㅎ니라
- 『번역소학』(1518년)에서 -

[현대어 풀이]
옛말에 이르되 어진 일 좇음이 높은 데 오름 같고, 사나운 일 좇음이 아래로 무너짐 같으니라.

- ① 현대 국어의 ‘말에’를 보니, ㉠은 이어 적기를 하였군.
② 현대 국어의 ‘이르되’를 보니, ㉡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군.
③ 현대 국어의 ‘어진’을 보니, ㉢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군.
④ 현대 국어의 ‘좇음이’를 보니, ㉣은 끊어 적기를 하였군.
⑤ 현대 국어의 ‘높은’을 보니, ㉤은 모음 조화가 지켜졌군.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범주화’란 우리가 접하는 사물, 개념, 현상을 분류하여 이해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우리는 우리가 접하는 대상들 가운데 특정한 대상들을 ‘나무’로 묶어 이해한다. 어떤 것을 ‘나무’라는 이름으로 범주화하는 것은 그것이 ‘풀’이나 ‘돌’과는 다름을 아는 것이며, 모양이나 특성이 다른 낱알의 수많은 나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만약 범주화하는 능력이 ㉠ 없다면 새로운 존재를 접할 때마다 모든 정보를 새롭게 파악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지적인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범주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에 대한 견해로 우선 고전적 범주화 이론을 들 수 있다. 고전적 범주화 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비롯된 것으로, 범주는 해당 범주를 정의하는 필요충분 속성의 집합으로 결정된다고 ㉡ 본다.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는 ‘사각형’이라는 범주의 필요충분 속성을 [네 개의 변], [폐쇄 도형], [평면 도형]으로 보았다. 모든 사각형은 이 세 가지 속성을 반드시 필요로 하며, 역으로 이 세 가지 속성을 가지면 모두 사각형으로 범주화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사각형으로 범주화된 것은 삼각형이나 오각형이라는 범주와 그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며, 범주 내의 사각형은 모두 대등한 가치를 지녀 더 그럴듯하거나 덜 그럴듯한 사각형의 구별이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다. 즉,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개별 대상은 필요충분 속성의 집합으로 범주화되지는 않으며, 범주의 구성원들은 일부 속성만 공유한다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를 ‘가족 유사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예컨대 ‘나, 동생, 아버지’로 ㉢ 이루어진 가족이 있다고 하자. ‘나’는 ‘아버지’와 부분적으로 닮고, ‘동생’도 ‘아버지’와 부분적으로 닮았다. 하지만 ‘나’와 ‘동생’은 닮은 점이 없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구성원 전체가 모든 속성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가족’이 될 수 있다.

심리학자인 로쉬 등은 비트겐슈타인의 견해를 바탕으로 ㉣ 원형 범주화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 이론에 의하면 어떤 대상의 범주는 그것이 해당 범주의 원형과 얼마나 많은 속성을 공유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원형은 어떤 범주에 대해 사람들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표상*으로, 어떤 대상이 해당 범주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 주는 속성들의 추상적 집합체이다. 기존 범주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대상이 ㉤ 나타날 경우, 그 대상의 속성으로부터 새로운 범주의 원형이 만들어지며, 범주의 구성원들이 계속 추가되면 원형이 ㉥ 바뀌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배추, 양파, 마늘, 고추, 토마토’ 등을 ‘채소’로 범주화한다는 것은, 각 채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형과 일정 부분 유사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원형과 많은 속성을 공유하는 ‘배추’나 ‘양파’ 같은 것은 전형적인 ‘채소’로 평가되는 반면, 적은 속성을 공유하는 ‘고추’나 ‘토마토’는 덜 전형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 판단 기준이 되는 원형이 무엇이냐에 따라 ‘토마토’ 같은 것은 ‘채소’뿐 아니라 ‘과일’로 범주화될 수도 있다.

* 표상: 외부 세계의 대상을 마음속에 나타내는 것.

16. 위글의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범주화하지 않고서는 대상을 기억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
- ② 대상을 범주화했다는 것은 대상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뜻이다.
- ③ 새로운 대상을 범주화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다.
- ④ 범주화하여 대상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인지 부담을 줄여준다.
- ⑤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세계를 범주화하여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17. <보기>에 대해 비트겐슈타인이 보일 만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필요충분 속성을 [동물], [두 다리]로 보았다.

- ① ‘인간’을 포함한 모든 대상은 일정한 필요충분 속성의 집합으로 범주화할 수 있어.
- ② [두 다리]는 ‘인간’의 구성원들이 모두 공유하는 속성이 아니므로 [동물]만이 필요충분 속성이야.
- ③ ‘인간’을 좀 더 분명하게 범주화하기 위해서는 [동물], [두 다리] 이외에 필요한 속성을 추가해야 해.
- ④ 범주는 필요충분 속성의 집합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인간’을 [동물], [두 다리]의 집합으로 범주화할 수는 없어.
- ⑤ ‘인간’이기 위해서는 [동물], [두 다리]라는 속성을 지녀야 하며, 이 두 가지 속성은 ‘인간’을 정의하기에 충분해.

18. ㉣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라보프는 높이와 너비가 다른 여러 개의 ‘그릇’을 제시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컵’인지, ‘접시’인지를 판단하게 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컵’과 ‘접시’의 구분 지점은 사람들마다 차이를 보였다. 이후 맥클로스키는 동일한 실험을 시차를 두고 진행한 결과, 한 개인 내에서도 구분 지점이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 ① ‘컵’과 ‘접시’의 구분 지점은 사람들마다 다르므로 ‘컵’이라는 범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② 마음속의 원형이 달라지면 한 개인 내에서도 ‘컵’과 ‘접시’의 구분 지점이 바뀔 수 있다.
- ③ ‘컵’으로 분류되는 대상의 구분 지점이 다르다는 것은 범주의 경계가 모호하고 불분명함을 의미한다.
- ④ 어떤 그릇을 ‘컵’으로 판단했다면 그 그릇이 ‘접시’보다 ‘컵’의 원형과 공유하는 속성이 많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⑤ 사람들 간에 ‘컵’과 ‘접시’의 구분 지점이 다른 것은 원형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사람들마다 다르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19.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결여(缺如)된다면
- ② ㉡: 간주(看做)한다
- ③ ㉢: 형성(形成)된
- ④ ㉣: 출현(出現)할
- ⑤ ㉤: 변화(變化)하기도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돈을 빌린 사람은 빌린 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데, 이를 이자라 하고,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금리(金利) 또는 이자율이라고 한다. 금리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보다 합리적으로 저축이나 소비,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금리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금리는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자금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금리가 올라가고, 자금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금리가 내려간다.

그런데 물가가 변하면 같은 돈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살 수 있는 구매력이 달라지고, 실질적인 금리도 달라진다. 이로 인해 명목적인 금리와 실질적인 금리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수립했다.

$$\textcircled{1} \text{ 명목 금리}(i) \approx \text{물가 상승률}(\pi) + \text{실질 금리}(r)$$

명목 금리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표면상의 금리이며, 각종 금융 기관이 제시하는 일반적인 예금과 대출의 금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값이다.

명목 금리는 물가 상승률과 실질 금리의 합과 같으므로, 두 지표의 변동을 알 수 있다면 명목 금리의 흐름도 예측해 볼 수 있게 된다. 명목 금리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가 변동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명목 금리도 오르는데, 이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 만큼 금리를 올려 보상 받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실질 금리는 사전에 관측되기 어려우므로 이를 간접적으로라도 알려줄 지표가 필요하다. 화폐가 없던 시절의 상황을 가정해 보자. 씨앗이나 농기구와 같은 실물을 빌리고 나중에 생산물 일부를 이자로 지급한다면, 어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좋겠는가? 아마도 실물을 투자해서 얻게 될 추가적 생산물의 양 이내에서 이자를 지급할 것이다. 즉 실질 금리는 실물 투자에 따라 늘어나는 추가적 생산물이 결정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제가 잘 돌아가 경제 성장률이 높을 때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투자 성과도 높아진다. 따라서 실질 금리는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오르고 떨어지면 낮아진다. 결국 금리의 흐름은 물가와 경제 성장률에 큰 영향을 받는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접하는 금리는 종류도 많고 그 구조도 복잡해 보인다.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다르고, 대출 금리라도 은행에 따라 다르고 빌리는 기간이나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금리가 결정되는 기초가 되는 정책 금리를 주목할 만하다. 정책 금리는 각국 중앙은행이 시중에 자금을 공급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이며, 기준 금리라고도 한다. 시중 은행은 정책 금리에 수수료와 이윤 등을 감안하여 금리를 책정하므로, 정책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시중 금리 역시 오르거나 내리는 전반적 변화가 생긴다.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이다. 물가 상승률이 높다 판단되면 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부진하다 싶으면 금리를 내리는데, 결정된 금리는 다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금리를 올려서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든지, 금리를 내려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은 모두 정책 금리를 통해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중앙은행의 의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2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질 금리를 분류하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상황을 가정하여 실질 금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명목 금리의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④ 금리를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와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⑤ 경제학적 관계식을 활용하여 금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2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실질 금리가 오른다.
- ② 자금 수요가 공급보다 적어지면 금리가 오른다.
- ③ 대출 금리는 각 개인의 신용도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 ④ 정책 금리는 시중 금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⑤ 물가가 떨어지면 명목 금리를 올려 보상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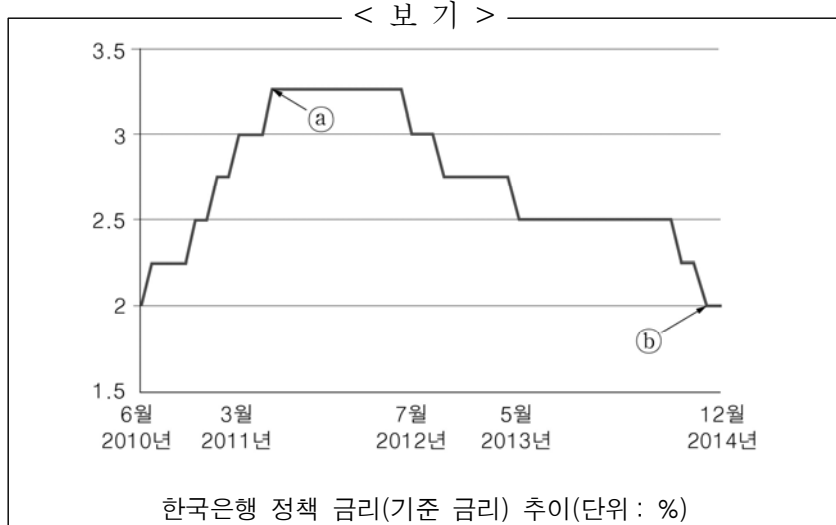
22. ㉠을 활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알뜰한 춘향이는 광한루은행에서 판매하는 1년 만기 예금 상품에 가입했다. 예금의 금리는 고정 금리 3%였다. 춘향이는 가입 시점 1년 후 물가 상승률을 2%로 예상하고 예금의 실질 금리를 계산했다. 1년 후 돈을 찾았을 때, 물가 상승률은 전년 같은 시기 대비 4%였다.

- ① 광한루은행은 명목 금리를 제시하지 않았다.
- ② 실제 돈을 찾는 시점에 예금의 실질 금리는 1%였다.
- ③ 예금의 실질 금리가 춘향이의 예상치보다 낮아졌다.
- ④ 광한루은행은 춘향이에게 높은 실질 금리를 보장했다.
- ⑤ 광한루은행은 예금 상품의 명목 금리를 중도에 바꾸었다.

23. 윗글로 볼 때, <보기>의 ㉠과 ㉡의 정책 금리 결정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정책 금리를 3.00%에서 3.25%로 인상함.): 경제 성장 측면에서 수출 부문은 양호하나 내수 부문이 부진하며, 해외 각국의 경기가 침체됨.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4%대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았음.
- ㉡ (정책 금리를 2.25%에서 2.00%로 인하함.): 경제 성장 측면에서 수출 부문은 양호하나 내수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석유 가격의 꾸준한 하락에 힘입어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1.1%로 낮아짐.

- ① ㉠의 결정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큰 영향을 미쳤겠군.
- ② ㉠에서 금리를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책정한 것은 내수 부문의 부진을 감안했기 때문이겠군.
- ③ ㉠의 결정으로 시중 금리가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올랐겠군.
- ④ ㉡의 결정에 내수 부문의 부진과 물가 상승률의 하락이 큰 영향을 미쳤겠군.
- ⑤ ㉡의 결정에는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중앙은행의 의도가 담겼겠군.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16세기 이후 바로크 음악에서는 음악이 구체적인 감정을 모방하고 재현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언어’의 기술인 수사학을 음악에 적용하는 음악수사학이 태동하였다. 음악수사학이 도입된 초창기에는 가사를 위주로 작곡을 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따랐지만, 마테존에 와서는 가사 없이 기악곡만으로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음악수사학을 체계화한 마테존은 청중에게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음형*의 사용을 강조하였다.
- (나) 마테존은 음형을 ‘선율 음형’과 ‘장식 음형’으로 나누었다. 선율 음형은 단어 및 문장 차원에서의 수사법을 작곡 과정에 적용한 음형이다. 그리고 장식 음형은 악곡을 실제 연주할 때 연주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음형이다. 마테존은 같은 내용이라도 웅변가가 상황에 따라 웅변술을 달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주자도 실제 연주할 때에는 이미 만들어진 악보에 장식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다) 선율 음형에는 단어 차원의 수사학에 근거한 음형인 ‘아나포라’, 문장 차원의 수사학에 근거한 음형인 ‘영탄법’, ‘멈춤’ 등이 있다. 아나포라는 수사학에서의 두음(頭音) 반복의 원리를 음악에 적용하여 일정 구절의 앞부분을 반복하는 음형이다. 작곡가는 전달하려는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 이 음형을 ㉢ 쓴다. 영탄법은 느낌표로 표현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두 음 사이의 도약을 통해 감탄을 표현한다. 멈춤은 음을 짧게 끊어 갑작스럽게 단절된 느낌을 주는 음형으로, 영탄법과 함께 격한 감정을 표현한다.

(라) 장식 음형은 연주자가 실제 연주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임의로 다른 음을 넣어서 연주하면서 구현되는 것이다. 장식 음형으로는 강조하고자 하는 음의 앞이나 뒤에 높거나 낮은 음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악센트’, 인접한 두 음을 빠르게 전환하는 ‘트릴’, 한 음이나 여러 개의 음을 빨리 되풀이하여 연주하는 ‘트레몰로’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마테존은 감정의 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악센트를 중시하였다.

(마) 음악수사학에서는 특정한 음형을 사용하면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마테존이 체계화한 음형은 기악의 표현력을 강화하여 기악이 성악과 대등한 위치에 서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18세기 말부터 음악수사학에 대한 관심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지만, 음악수사학자들이 체계화한 음형은 오늘날까지 음악에 대한 상식으로 남아 있다.

* 음형: 연속한 몇 개의 음이 특정 있는 형태를 이루고 있는 모양.

24.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음악수사학의 태동 배경을 제시하였다.
- ② (나)에서는 음형을 두 부류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 ③ (다)와 (라)에서는 (나)의 내용을 상세화하였다.
- ④ (라)에서는 비유를 통해 장식 음형을 설명하였다.
- ⑤ (마)에서는 음악수사학의 의의를 제시하였다.

25.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없는 것은?

- ① 마테존은 장식 음형보다는 선율 음형을 중시하였다.
- ② 바로크 시대에는 수사학을 음악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 ③ 마테존은 기악곡만으로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 ④ 마테존은 기악이 성악과 대등한 위치에 서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 ⑤ 음악수사학에서는 음형을 통해 감정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26. <보기>는 음형을 활용하여 습작한 악보와 연주자의 메모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① ㉠에는 일정 구절의 앞부분을 반복하여 감정을 강조하려는 작곡자의 의도가 담겨 있어.
- ② ㉡에서 음이 도약하는 것을 보니 가사를 붙인다면 감탄을 드러내는 표현이 적절하겠군.
- ③ ㉢는 연주자가 자신의 재량으로 장식 음형의 일종인 트레몰로를 사용한 것이군.
- ④ ㉠는 단어 차원, ㉡는 문장 차원에 근거한 음형이군.
- ⑤ ㉠는 작곡 과정에서 고안되는 반면에 ㉢는 실제 연주에서 구현되었어.

27. 밑줄 친 부분의 문맥적 의미가 ㉠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요즘 신경 쓸 일이 많다.
- ② 그 공식을 쓰니 문제가 풀렸다.
- ③ 악기를 사는 데 많은 돈을 썼다.
- ④ 억지를 쓰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
- ⑤ 공사를 하게 되어 인부를 써야 한다.

[28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빛이 물체에 닿으면 물체를 구성하는 원자 내의 전자가 진동하면서 전자기파를 방출하는데, 인간의 눈에 보이는 빛의 색깔은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고유한 진동수에 따라 결정된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중 가장 낮은 진동수의 빛은 빨간색 광선이며, 진동수가 가장 높은 빛은 보라색 광선이다. 보라색 광선보다 더 높은 진동수를 지닌 자외선이나, 빨간색 광선보다 더 낮은 진동수를 지닌 적외선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빛이 물체에 닿을 때, 물체는 흡수한 빛 중에서 특정 진동수의 가시광선을 우리 눈의 방향으로 다시 방출하여 우리 눈은 그 방출된 빛을 보게 된다. 장미가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 장미가 흡수한 빛 중에서 빨간색 광선에 해당하는 진동수의 빛을 우리 눈의 방향으로 방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리와 같은 투명체는 왜 특정 색깔을 띠지 않고 투명해 보이는 것일까? 인간의 눈에는 빛이 직진하여 그대로 유리를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즉 유리를 구성하는 원자가 흡수한 빛 가운데, 적외선과 자외선은 유리에 대부분 흡수되어 열에너지의 형태로 남고,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는 대부분은 사방으로 재방출된다. 유리가 투명해 보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그런데 유리 원자가 가시광선을 흡수했다가 방출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소요된 시간만큼 빛의 속력이 줄어들게 된다. 공기 중에서의 빛의 속력의 값을 c 로 놓을 때, 유리나 물과 같은 투명체를 통과하는 빛의 속력은 c 의 대략 70%에 불과하다. 이렇게 느려진 빛은 다시 공기 중으로 나오면서 원래의 속력을 회복하게 된다. 빛의 속력은 매질의 밀도가 높을수록 낮아지는데, 공기 중보다 유리에서 빛의 속력이 낮아지는 것은 유리의 밀도가 공기의 밀도보다 높기 때문이다.

빛이 이렇게 물질마다 다른 속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의 경계면에 닿았을 때 수직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언제나 빛의 경로가 꺾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굴절이라고 한다. 굴절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매끈한 아스팔트에서 바퀴가 잘 구르지 않는 잔디밭으로 장난감 자동차가 비스듬히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잔디에 먼저 도착한 쪽의 바퀴의 속력은 느려지지만 아스팔트 위를 달리고 있는 쪽의 바퀴의 속력은 빠르게 유지되기 때문에 자동차의 진행 방향은 잔디에 먼저 도착한 쪽의 바퀴가 있는 방향으로 꺾이게 된다. 빛이 공기 중에서 물로 비스듬히 들어갈 때에도, 빛의 파면*의 아랫부분이 물에 먼저 도착하여 속력이 느려지면서 빛이 파면의 아랫부분으로 꺾이게 된다.

또한 빛이 투명체를 지날 때 굴절되면서 진동수에 따라 다양한 광선으로 분리되는데, 이를 빛의 분산이라고 한다. 빛이 공기 중에서 투명체로 비스듬히 들어갈 때, 진동수가 높은 보라색 광선은 진동수가 낮은 빨간색 광선보다 투명체 안에서의 속력이 더 느려지기 때문에, 더 많이 굴절된다. 이에 따라 투명체를 통과하는 빛은 서로 다른 색깔의 광선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진행 경로로 방출된다.

* 빛의 파면: 빛을 파동으로 보았을 때 빛의 진행 방향과 수직인 면. 본래 파면은 곡선이나 태양과 거리가 먼 지구에서의 빛의 파면은 거의 직선이다.

28. 밑글에서 다른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자외선이 유리에 흡수되는 이유
- ② 빛의 색깔에 따른 진동수의 차이
- ③ 빛의 진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
- ④ 유리와 같은 물체가 투명하게 보이는 이유
- ⑤ 투명체를 통과할 때 빛의 속력이 감소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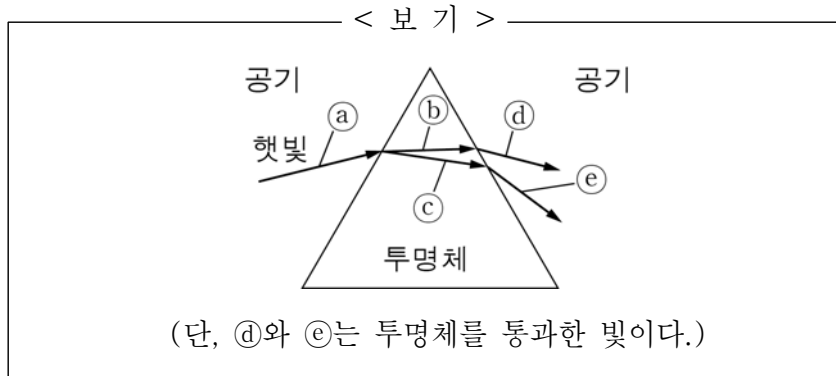
29. <보기>의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 보 기 >

투명한 연못 속의 금붕어를 물가에 서서 비스듬히 내려다볼 때, 관찰자의 눈에는 금붕어가 본래의 위치보다 수면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금붕어에 닿은 빛이 되돌아와 우리 눈에 보이는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 ① 밀도가 다른 매질에서 빛의 속력이 변함.
- ② 빛이 수면과 수직 방향으로 들어가고 나옴.
- ③ 가시광선이 물속에서 빠른 속력으로 직진함.
- ④ 물이 특정 색의 가시광선만 흡수했다 방출함.
- ⑤ 빛이 진동수에 따라 여러 빛깔의 광선으로 분리됨.

30. 윗글을 읽고 <보기>의 그림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㉔와 ㉕의 속력은 다르다.
- ② ㉔ ~ ㉕ 중, ㉕의 속력이 가장 느리다.
- ③ ㉔와 ㉕에는 자외선이 들어 있지 않다.
- ④ ㉔의 진동수는 ㉕의 진동수보다 높다.
- ⑤ ㉔와 ㉕의 진동수는 같다.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무너진 성(城)터 아래 오랜 세월을 풍설(風雪)에 깎여 온 바위가 있다

아득히 손짓하며 구름이 떠가는 언덕에 말없이 올라서서
한 줄기 바람에 조잘히* 씻기우는 풀잎을 바라보며
나의 몸가짐도 또한 실오리 같은 바람결에 흔들리노라
아 우리들 태초(太初)의 생명(生命)의 아름다운 분신(分身)
으로 여기 태어나

고달픈 얼굴을 마조 대고 나직히 웃으며 얘기하노니
때의 흐름이 조용히 물결치는 곳에 그윽히 피어오르는 한
떨기 영혼이여

- 조지훈, 「풀잎 단장(斷章)」 -

* 조잘히: 맑고 깨끗하게.

(나)

[A] 나무들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서서
하늘을 향해 길게 팔을 내뻗고 있다

[B] 밤이면 메마른 손끝에 아름다운 별빛을 받아
드러난 몸통에서 흙 속에 박은 뿌리까지
그것으로 말끔히 씻어내려는 것이겠지

[C] 터진 살갗에 새겨진 고달픈 삶이나
뒤틀린 허리에 뻗 구질구질한 나날이야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어
한밤에 내려 몸을 덮는 눈 따위
흔들어 시원스레 털어 다시 알몸이 되겠지만

[D] 알고 있을까 그들 때로 서로 부둥켜안고
온몸을 떨며 깊은 울음을 터뜨릴 때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 신경림, 「나무」 -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문답법을 사용하여 친밀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② 단정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시대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④ 대상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 ⑤ 특정한 대상을 인간적 속성을 지닌 존재로 형상화하고 있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의 화자는 특정한 공간에서 영원에 가까운 기나긴 시간의 흐름을 포착한다. 여기서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은 이러한 시간의 흐름을 견뎌내는 강인한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는 소멸될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여린 존재이다. 화자는 이러한 존재와 교감을 하면서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

- ① ‘바위’는 영원에 가까운 ‘오랜 세월’ 동안 ‘풍설’을 견뎌온 존재이다.
- ② ‘구름이 떠가는 언덕’은 화자가 ‘태초’로부터 이어지는 기나긴 시간의 흐름을 포착하는 공간이다.
- ③ ‘나’는 ‘풀잎’처럼 ‘바람결에 흔들리’는 존재로, ‘우리들’이라는 말을 통해 ‘풀잎’과의 동질감을 드러낸다.
- ④ ‘얼굴을 마조 대고 나직히 웃으며 얘기하노니’는 ‘나’가 여린 존재인 ‘풀잎’과 교감하는 모습을 표현한다.
- ⑤ ‘한 떨기 영혼’은 ‘나’가 소멸될 운명을 벗어나 영원의 세계를 지향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33. (나)를 [A] ~ [D]로 나누어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화자는 나무가 ‘하늘을 향해 길게 팔을 내뻗고 있’는 모습에 주목하며 시상을 열고 있다.
- ② [B]에서 화자는 [A]에서의 나무의 모습을, ‘별빛’을 통해 스스로를 정화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 ③ [C]에서 화자는 나무가 ‘고달픈 삶’이나 ‘구질구질한 나날’을 당당히 감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④ [C]에서 화자는 나무가 ‘몸을 덮는 눈’으로부터 따뜻한 위로 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⑤ [D]에서 화자는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을 통해 나무의 처지에 공감하는 존재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34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양소유는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화주 화음현 땅에 이르러 버드나무를 보고 시 한 수를 읊는다.

봄바람이 시 읊는 소리를 누각 위로 올려 보내니, 마침 누각에서 한 미인이 낮잠에 빠져 있다가 놀라 베개를 밀치고 일어나 앉았다. 창문을 활짝 열고 문턱에 기대어 소리 난 곳을 찾아 눈을 돌리다가 소유와 눈이 딱 마주쳤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은 귀밑으로 흘러내렸고 옥비녀는 기울어져 있었다. 흐린 눈으로 멍하게 앉아 있는데 가녀린 몸에 힘이라곤 없어 보였다. 눈가는 아직 잠이 덜 깬 듯하고, 뺨에는 연지가 반쯤 지워져 있었다. 하늘이 낸 듯 어여쁜 자태는 말로 형용할 수도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었다. 두 사람이 마주 보는데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때 양생의 시동이 돌아왔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미인이 정신을 잃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깨닫고 문을 닫고 들어갔다. 그윽한 향기만 바람을 타고 풍겨 올 뿐이었다. 소유는 시동을 원망했다. 미인이 구슬발을 치고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약수*를 사이에 둔 것처럼 여겨졌다. ㉠ 어쩔 수 없이 시동과 돌아가는데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한 번씩 돌아보았으나 굳게 닫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소유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관에 돌아왔고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다.

미인의 성은 진씨고 이름은 채봉으로 진 어사의 딸이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었으며 형제도 없었다. 결혼해 비녀를 꽂을 때가 되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이때 진 어사는 서울에 가 있었고 채봉 홀로 집에 있었는데, 꿈에도 생각지 못한 귀남자를 만나 그 풍모를 보고 기뻐하고 그 시를 듣고 재주를 흠모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여자는 남편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자의 평생 영욕과 백년고락이 모두 남편에게 달려 있다. 그렇기에 탁문군은 과부였지만 스스로 사마상여를 따르기로 정하고 실행했다. 그런데 나는 처녀니 내가 먼저 나서서 뜻을 밝히면, 스스로 자기 결혼에 중매를 서려고 한다는 혐의를 얻을 것이다. 하지만 옛말에 신하도 임금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으니, 처녀도 남편을 선택할 수 있지 않으랴. 만일 지금 그 사람 이름도 묻지 않고 어디 사는지도 알지 못하면, 나중에 아버지에게 고해서 중매를 보내려고 해도 천지 사방 어디에서 그를 찾을 수 있으리.’

이에 한 폭 종이를 펴 시 한 수를 쓰고 봉해서 유모에게 주며 말했다.

“이 편지를 가지고 저 여관에 가서, 아까 작은 나귀를 타고 우리 누각 아래 와서 ‘양류사(楊柳詞)’를 지은 상공을 찾아 전하세요. 내가 인연을 맺어 일생 몸을 맡기고 싶어함을 알게 하세요. 막중한 일이니 꾸물대지 마세요. 상공은 얼굴이 옥 같고 눈썹은 그린 듯하니 비록 여러 사람 가운데 있더라도 쉽게 알아보실 거예요. 반드시 내 편지를 친히 전하세요.” “시키는 대로 하려니와 나중에 어사께서 물으시면 어찌 대답하리까?”

“그것은 내 할 일이니 걱정 마세요.”

유모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물었다.

“상공이 결혼이나 약혼을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채봉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불행히 결혼했으면 실로 그의 첩이 되는 것도 꺼리지 않겠지만, 내 보기에 젊으니 아직 결혼은 안 한 듯싶어요.”

유모가 여관으로 가서 ‘양류사’를 읊조린 손님을 찾았다. 이때 소유가 여관 문밖에 서 있다가 노파의 말을 듣고 말했다.

“‘양류사’를 지은 사람은 나요. 노파는 무슨 이유로 물으시요?”

……(중략)……

유모는 소매에서 채봉의 편지를 꺼내 소유에게 건넸다. 소유가 뜯어보니 답시였다.

[A] 누각 앞에 버드나무 심은 뜻은
임의 말을 묶어 두려 한 것인데
어찌하여 가지 꺾어 채찍 삼아
바삐바삐 서울 길로 향하는고

소유는 그 글의 청신, 완곡함에 크게 감복하여 기려 말하였다.

“옛날 저명한 시인 왕유나 이백이 고쳐 지으려 해도 한 글자도 바꾸지 못하리라.”

이에 고운 색종이를 펼쳐 시 한 수를 지어 유모에게 주었다.

[B] 버드나무 천만 가지
가지마다 마음 묶어
월하노인 끈 만들어
봄소식을 이루고자

유모가 시를 가슴 속에 넣고 나가는데 소유가 불렀다.

“그 댁 아씨는 진 땅 사람이고 소생은 초 땅 사람이니 한번 헤어지면 만 리 거리에 산천이 가로막혀 소식조차 통하기 어렵소. 하물며 오늘 일은 중매인도 없이 한 것이니 나중에 의지할 데도 없소. 오늘밤 달빛을 따라가서 아씨의 용모를 보고자 하니 어떻겠소? 소저의 시에도 이런 뜻이 비쳐 있으니, 노파가 아씨께 여쭙어 주요.”

유모가 채봉에게 갔다 와서 말했다.

“아씨가 낭군의 답시를 받아 들고 아주 감격했습니다. 낭군의 뜻을 전했더니 아씨가 ‘남녀가 결혼식도 치르기 전에 사사로이 만나는 것은 예법에 맞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낭군께 몸을 맡기고자 정했으니 어찌 낭군 말씀을 따르지 않겠어요? 다만 한밤중에 만나면 사람들의 구설에 오르기 쉽고, 나중에 아버지께서 아시면 반드시 꾸짖으실 테니, 내일 우리 집 중당에서 만나 혼약을 정하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소유가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아씨의 밝은 의견과 바른 말은 소생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요.”

유모에게 약속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두 번 세 번 부탁하니, 유모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는 돌아갔다.

— 김만중, 「구운몽」 —

* 약수 : 신선이 살았다는 중국 서쪽의 전설 속의 강. 길이가 3,000리나 되며 부력이 매우 약하여 기러기의 털도 가라앉는다고 한다.

34. <보기>는 윗글에 나타난 특징을 정리해 본 것이다. 적절한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보 기 > —

ㄱ. 전기적 요소를 통해 중심 인물을 부각하고 있다.
 ㄴ. 신비로운 공간적 배경을 통해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ㄷ.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외양을 제시하고 있다.
 ㄹ. 이야기 바깥의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35.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를 읽고 ‘소유’는 ‘채봉’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강화하고 있다.
 ② [A]에는 소망이 무산될까 안타까워하는 ‘채봉’의 심정이 담겨 있다.
 ③ [B]에서 ‘버드나무 천만 가지’는 ‘소유’의 소망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④ [A]와 [B] 모두 반어적 표현을 통해 인물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⑤ [A]와 [B]에서 ‘채봉’과 ‘소유’는 동일한 소재에 의탁하여 자신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소설은 인간의 욕망을 다룬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작품 속의 등장인물은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려 하지만, 주위의 시선이나 당대의 일반적 가치관을 의식하여 일시적으로 제어하기도 한다.

- ① ‘소유’가 ‘시동’을 원망한 것은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채봉’이 떠올린 ‘옛말’은 자신의 욕망 충족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 볼 수 있다.
 ③ ‘채봉’이 ‘유모’에게 지시 내용의 막중함을 강조한 것은 주위의 시선을 중시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④ ‘유모’가 ‘채봉’에게 질문한 것은 ‘채봉’의 욕망과 관련된 당대의 가치관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⑤ ‘채봉’이 ‘소유’의 제안을 부분적으로 거절한 것은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여 상대의 욕망을 일시적으로 제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7. ㉠의 상황을 <보기>와 같이 표현했을 때,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소유는 채봉이 창 안으로 사라지자 (㉡)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 ①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② 수수방관(袖手傍觀)하며
 ③ 아연실색(啞然失色)하며
 ④ 안하무인(眼下無人)으로
 ⑤ 혼비백산(魂飛魄散)하며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수국(水國)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달 들어라 달 들어라
 만경정파(萬頃澄波)*에 슬카지* 용여(容與)하자*
 지국충(至芻囂) 지국충(至芻囂) 어사와(於思臥)
 인간(人間)을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다

— 추(秋) 2 —

* 만경정파: 만 이랑의 맑은 물결, 한없이 넓은 바다.
 * 슬카지: 실컷.
 * 용여하자: 즐기자.

건곤(乾坤)이 제 각각인가 이것이 어드메오
 배 매어라 배 매어라
 서풍진(西風塵)* 못 미치니 부채하야 무엇하리
 지국충(至芻囂) 지국충(至芻囂) 어사와(於思臥)
 들은 말이 없었으니 귀 씻어* 무엇 하리

— 추(秋) 8 —

* 서풍진: 서풍에 날려 오는 먼지.
 * 귀 씻어: 요임금 때 허유의 고사와 관련된 표현.

㉡ 옷 위에 서리 오대 추운 줄을 모랄로다
 닷 내려라 닷 내려라
 조선(釣船)*이 좁다 하나 부세(浮世)*와 어떠하니
 지국충(至芻囂) 지국충(至芻囂) 어사와(於思臥)
 내일도 이리 하고 모레도 이리 하자

— 추(秋) 9 —

* 조선: 고깃배.
 * 부세: 헛된 세상.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

(나)

매화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나뇨?
 세인이 말하기를 매화는 늙어야 한다 합니다. 그 늙은 등걸이 용의 몸뚱어리처럼 뒤틀려 올라간 곳에 성긴 가지가 군데군데 뻗고 그 위에 띄엄띄엄 몇 개씩 꽃이 피는 데 품위가 있다 합니다.

[A] 매화는 어느 꽃보다 ㉢ 유덕한 그 압향이 좋다 합니다.
 백화(百花)가 없는 빙설리(氷雪裏)에서 홀로 소리쳐 피는 꽃이 매화밖에 어디 있느냐 합니다.

혹은 이러한 조건들이 매화를 아름답게 꾸미는 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매화를 사랑하는 마음은 실로 이러한 ㉔ 많은 조건이 멸시된 곳에 있습니다.

그를 대하매 아무런 조건 없이 내 마음이 황홀하여지는 데야 어찌하리까.

매화는 그 등치를 꾸미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 자라고 싶은 대로 우뚝 뻗어서 제 피고 싶은 대로 피어오르는 꽃들이 가다가 홀쩍 향기를 보내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제가 방 한구석에 있는 채도 않고 은사(隱士)처럼 겸허하게 앉아 있는 품이 그럴 듯합니다.

[B] 나는 구름같이 핀 매화 앞에 단정히 앉아 행여나 풍겨오는 암향을 다칠세라 호흡도 가다듬어 쉬면서 격동하는 심장을 가라앉히기에 힘을 씁니다. 그는 앉은 자리에서 나에게 곧 무슨 이야긴지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매화를 대할 때의 이 경건해지는 마음이 위대한 예술을 감상할 때의 심경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내 눈앞에 한 개의 대리석상이 떠오릅니다. 회랍에서도 유명한 피디어스의 작품인가 보아요. 다음에 운강(雲岡)과 용문(龍門)의 거대한 석불(石佛)들이 아름다운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서 내 눈앞에 황홀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수유(須臾)*에 이 여러 환영들은 사라지고 ㉕ 신라의 석불이 그 부드러운 곡선을 공중에 그리면서 아무런

[C] 조건도 없이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자세로 내 눈을 현황(眩慌)*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나는 다시 희멸건 이씨조(李氏朝)의 백사기(白砂器)를 봅니다. 희미한 보름달처럼 아름답게 조금도 그의 존재를 자랑함이 없이 의젓이 제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수줍어하는 품이 소리쳐 불러도 대답할 줄 모를 것 같구요. 고동(古銅)의 빛이 제아무리 곱다 한들, 용천요(龍泉窯)의 품이 제 아무리 높다 한들, 이렇게도 적막한 아름다움을 지닐 수 있겠습니까.

[D] 댁에 매화가 구름같이 핀 그 앞에서 나의 환상은 한없이 전개됩니다. 그러다가 다음 순간 나는 매화와 석불과 백사기의 존재를 모조리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잔잔한 물결처럼 내 마음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있는 듯 마는 듯한 향기가 내 코를 스치는구료.

* 수유: 잠시.

* 현황: 정신이 어지럽고 황홀함.

— 김용준, 「매화(梅花)」—

39. <보기>를 참고할 때, (가)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어부사시사’에서 화자가 머무는 공간은 화자의 경험을 통해 구체화된다. 그리고 그 공간이 갖는 의미는 고사를 통해 암시되기도 하며 속세와의 대비를 통해 부각되기도 한다. 제시된 작품 중 ‘추 8’에 나오는 고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풍진’: 진(晉)나라 때 원규라는 인물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는데, 왕도(王導)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서풍에 날아오는 먼지를 부채로 가리며, “원규가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했다고 함.

— ‘귀 씻어’: 요 임금 때 허유라는 인물이 요 임금에게서 나라를 맡으라는 말을 듣고 “귀가 더러워졌다.”라고 하며 강물에 귀를 씻었다고 함.

- ① ‘추 2’의 ‘수국’과 ‘추 9’의 ‘조선’은 각각 ‘인간’, ‘부세’와의 대비를 통해 그 성격이 분명해지는군.
- ② ‘추 2’의 ‘슬카지 용여하자’에는 화자가 자신이 머무는 공간에서의 경험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군.
- ③ ‘추 2’의 ‘멀수록 더욱 좋다’와 ‘추 8’의 ‘이것이 어드메오’에서는 동일한 공간에 대한 상반된 인식이 표면화되는군.
- ④ ‘추 8’의 ‘서풍진 못 미치니’와 ‘들은 말이 없었으니’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속세와의 거리감이 표현되는군.
- ⑤ ‘추 9’의 ‘내일도 이리 하고 모래도 이리 하자’에는 현재의 생활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는군.

40. [A] ~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글쓴이는 매화의 아름다움에 대한 세인의 생각을 인용하고, 그와 대비되는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B]에서 글쓴이는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매화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매화를 대할 때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③ [C]에서 글쓴이는 연상을 통해서 매화가 갖지 못한 새로운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 ④ [D]에서 글쓴이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매화로부터 받은 감동을 표현하고 있다.
- ⑤ [D]에서는 [C]에서 한껏 고조되었던 글쓴이의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매화의 은은한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있다.

38.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명령하는 어조로 대상에 시선을 집중시켰다.
- ② 연쇄적 표현을 통해 내용의 긴밀성을 높였다.
- ③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공간의 속성을 부각하였다.
- ④ 원근을 대비하여 대상이 지닌 중의적 의미를 보여주었다.
- ⑤ 물음의 방식으로 말하는 이의 뜻을 강조하여 전달하였다.

41. ㉑ ~ 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화자의 심리적 충족감이 담겨 있다.
- ② ㉒: 현재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엿보인다.
- ③ ㉓: 인간적 덕성에 비유된 매화의 속성이다.
- ④ ㉔: 글쓴이가 매화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다.
- ⑤ ㉔: 글쓴이의 감정을 투영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42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게 오래된 옛 우물과 그 속에 사는 금빛 잉어에 대해 말해준 사람은 증조할머니였을 것이다.

어릴 때 살던 동네 가운데에 큰 우물이 있었다. 물맛이 달아 단샘, 커다랗다고 해서 한우물이라고도 했지만 사람들은 예부터의 습관대로 옛 우물이라고 불렀다. 아주 옛날부터 있어온 우물이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우물은 물이 깊고 물맛이 좋았다. 증조할머니는 내게 말했다. 옛 우물에는 금빛 잉어가 살고 있다. 천 년이 지나면 이무기가 되고 또 천 년이 지나면 뇌성벽력 치는 밤 용이 되어 하늘에 올라가지. 아흔 살이 넘은 할머니에게서 검은 머리털이 돌아나고 텅 빈 입에 누에씨 같은 희고 깨끗한 이가 돌아나자 어머니는 그것을 불길한 재앙의 징조로 여겼다. 노망이 들었다고 말했다. 할머니에게 대꾸도 하지 않았고 바로 보지도 않았고 밥도 조금씩밖에 주지 않았다. 노망든 노인네들은 오래 산다는 속설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고양이 혼이 썩어 밤마다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며 쥐를 잡으러 다니는 광자네 할머니 같지는 않았다. 오돌이네 할아버지처럼 자기가 싼 똥을 주워 먹지도 않았다.

달빛 가득한 우물을 들여다보면 금빛 잉어가 슬몃슬몃 물 속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도 했다. 계집아이들은 학교에서 오전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면 해지기 전까지 물을 길어 놓아야 했다. 두레박을 빠뜨리면 매를 맞거나 밥을 굶었지만 아이들은 늘 두레박을 빠뜨리고 저물 때까지 우물가에서 무력하고 절망적이고 공포에 찬 울음을 울곤 했다. 방심은 언제나 용서받지 못할 악덕이었다.

.....(중략).....

① 물이 가득 찬 두레박을 힘겹게 끌어올리다 보면 어느 곁에 우물 속에서 끌어당기는 아귀센 힘이 따라올라왔다. 아앗 놀라라 하는 순간 줄이 긴장된 손아귀에서 미끄럽게 빠져나가거나 두레박에 단단히 묶였던 줄이 스르르 풀려 빈 줄만 허전하게 올라오기도 했다.

아이들은 우물 속에 금빛 잉어가 산다는 내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고 거짓말쟁이, 허풍쟁이라고 했지만 정옥이는 내 말을 믿어 주었다. 게다가 ‘소원을 들어주는 잉어’일 거라고 덧붙였다.

그해 여름 장마가 지나고 우물을 쳤다. 물맛이 뒤집혔기 때문이었다. 가뭄이나 큰 홍수 따위 큰일이나 나라의 변고가 있을라치면 우물이 뒤집히고 장맛이 변한다고 어른들은 믿었다. 그해의 장마는 대단했다. ㉠ 아이들은 모두 강으로 달려갔다. 어른들은 긴 장대와 망태를 들고 집을 나섰다. 학교는 휴교였다. 수재민들의 숙소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 강 건너 섬에는 포플러 가지들만이 비죽비죽 솟아 있고 그 위에 커다란 새들이 날아와 앉았다. 누런 물이 범람하는 강은 별관 같았다. 어른들은 강이 범람하여 독을 무너뜨릴까 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아침이면 장대를 들고 강으로 나갔다.

아이들은 강가에서 노래를 불렀다. 장마통에 똥 덩어리가 제 이름 부르며 흘러가더라. 동동동동 똥똥똥똥. 마지막 후렴은 목소리를 모아 악을 쓰듯 질러대었다. 비바람에 새파래진 얼굴과 입술로. 강에는 없는 것이 없었다. 호박과 장롱과 양은술, 우리에게 든 채인 닭과 토끼가 사나운 물살에 실려 떠내려왔다. 인자 아버지는 껍뻍 비명을 지르며 떠내려오는 돼지를 잡으려다가 물살에 휩쓸려 죽을 뻔했다.

동네 어른들은 우물 속에 차오르던 황토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날을 잡아 떡과 돼지머리, 과일을 차려놓고 고사를 지냈다. 고사를 지낸 뒤 남자들이 물을 퍼냈다. 그러고는 제대 군

인 순옥이 삼촌이 양말과 신발을 벗고 옛날 얘기에 나오는 사람처럼 튼튼히 엮은 삼태기를 타고 우물 밑으로 내려갔다. 아이들은 순옥이 삼촌이 까무룩히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불안하게 바라보았다. ㉢ 한없이 깊고 어두운 동그라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푸른 이끼 자라는 우물의 돌 틈에서 손톱만 한 개구리들이 팔짝팔짝 뛰어오르고 빈 우물이 우우웅 웅웅깊은 소리로 울었다. 바닥을 긁는 소리, 그리고 올리어어라는 순옥이 삼촌의 소리가 땅 밑으로부터 벽에 부딪혀 몇 바퀴 돌아 나오면 우물가의 남자들이 줄을 당겼다. 삼태기에는 바닥의 흙이며 녹슨 두레박과 두레박 건지는 갈고리, 삭아버린 고무신 한 짝, 썩은 나무토막, 사금파리 따위들이 한없이 실려 올라왔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까마득히 깊은 우물 속에서 허리를 굽히고 그 안의 것들을 퍼 담는 순옥이 삼촌은 난쟁이처럼 납작해 보였다. 삼태기가 올라올 때마다 모두들 유심히 그것들을 살펴보았다. 아무도 내려가 본 적이 없는 깊은 우물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무엇인가 굉장한 것들이 있으리라는 기대였을까. 삼태기에 고운 모래흙만 담겨 올라오자 일은 끝났다. 마지막으로 순옥이 삼촌이 한 오백 살이나 나이 먹은 얼굴로 삼태기를 타고 올라왔다. 빛에 눈이 부신지 한동안 낮선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으허허 영문 모를 웃음을 터뜨렸다.

순옥이 삼촌과 우물 치던 남자들은 술을 마시러 갔고 ㉣ 아이들은 우물 턱에 조롱조롱 매달려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우물 속을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우물 속에 금빛 잉어는 없었다. 그래도 나는 맑은 물이 그득 고이면 금빛 잉어가 살리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 정옥이는, 금빛 잉어는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샘이 솟는 깊은 구멍으로 잠시 숨어 버렸을 거라고, 맑은 물이 고이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했다.

- 오정희, 「옛 우물」 -

42.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등장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 ② 과거 회상의 기법을 사용하여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서술의 주체를 교체하여 이야기의 입체감을 높이고 있다.
- ④ 인물의 성격 변화 과정을 제시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⑤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여 자의식의 혼란을 드러내고 있다.

43.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해 여름 장마’ 때문에 수재민이 학교에 머물렀다.
- ② ‘나’는 ‘증조할머니’가 노망이 들어서 무섭다고 느꼈다.
- ③ ‘어른들’은 장마로 인해 마을이 물에 잠길까 걱정했다.
- ④ ‘순옥이 삼촌’은 우물을 나온 후 영문 모를 웃음을 터뜨렸다.
- ⑤ ‘옛 우물’이라는 이름은 우물이 지닌 특성보다는 사람들의 습관에 따라 붙여졌다.

44. 옛 우물 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에게 ‘옛 우물’은 금빛 잉어가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 공간으로, 이러한 믿음은 ‘증조할머니’의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
 - ② ‘증조할머니’에 대한 ‘어머니’의 부정적인 태도는 ‘옛 우물’에 대한 나의 믿음이 변화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다.
 - ③ ‘계집아이들’에게 ‘옛 우물’은 고달픔을 주는 공간으로, 이는 물을 길어야 했던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④ ‘어른들’이 ‘옛 우물’을 ‘큰일’, ‘변고’와 관련지어 바라본다는 점에서, ‘옛 우물’은 비합리적 믿음의 대상이다.
 - ⑤ ‘정옥’은 ‘나’를 비난하는 아이들과 달리 ‘나’의 편을 들며, ‘옛 우물’에 대한 ‘나’의 믿음을 지지해 주었다.

45. 문맥적 의미를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우물에 대한 친구들과의 추억에서 비롯된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 ② ㉡: 장마로 인한 사람들의 비일상적 행동이 드러나고 있다.
 - ③ ㉢: 큰물이 다 빠져나간 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 ④ ㉣: 우물 속을 내려가는 사람의 두려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⑤ ㉤: 우물 속 존재에 대한 아이들의 들뜬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